

조직논문

칼빈의 경건 신학

Calvin' s Theology of Piety

문병호 (총신대학교 조교수, 조직신학, Ph.D.)

Moon, Byung-ho (Assistant Professor, Chongshin University,
Systematic Theology, Ph.D.)

한글 초록

본고에서는 칼빈의 경건 개념의 신학적 의의와 가치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받은 지식에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받은대로 올려드리는 예배의 삶을 사는 것으로 역동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공로의 주입에 기초하여 카톨릭 신학자들이 추구한 영성이라는 개념과 본질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서 고찰한다. 칼빈에게 있어서는 영성이 아니라 경건이라는 개념이 적실함은 그가 성경의 축자영감설에 기초하여 신학을 세우고,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에 따른 기독교적이며 삼위일체론적 구원론을 전개하였고, 교회를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감으로 파악하고, 성도의 삶에 있어서 율법의 중보자 그리스도의 계속적 의의 전가에 기초하여 율법의 규범적 의미와 신학적 의미를 함께 강조했기 때문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경건의 의미는 단지 윤리적이거나 현상적이라기 보다 본질적이며 신학적이다. 성도의 삶은 여전히 끈고함이 있으므로 자라가는 삶이다. 그 삶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가받는 삶이다. 그 삶의 현상 자체보다 그 삶 자체의 원리에 칼빈의 경건 개념은 놓여있다.

주제어 : 칼빈, 경건, 영성, 전가, 그리스도와 연합, 중보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meaning and significance of Calvin's concept of pietas (piety, godliness) as believers' living in union with Christ the Mediator according to the divine knowledge, illuminated from above and persuaded from inside, and sanctifying all given by God and worshipping Him with them. Calvin's notion of pietas based on the free imputation of the righteousness of Christ fulfilled on the cross is absolutely opposite to the notion of spirituality deployed prominently by Catholic theologians in order to explain the infusion of merits of mediators including priests. The reason why for Calvin the notion of pietas is pertinent is that he bases his theology on the doctrine of the literal inspiration of the Bible, develops his Trinitarian and Christological soteriology according to union with Christ, grasps the church as the society of members growing up towards Christ the Head, and emphasizes both the normative and theological use of the law on the ground of Christ's continuous imputation of His righteousness as the Mediator. For Calvin the meaning of pietas is not so much ethical and phenomenal as essential and theological. Christian life is the life of imputation. Calvin's notion of pietas lies not so much in its phenomena themselves as in the principle of life itself.

Key Words : Calvin, piety, spirituality, imputation, union with Christ, mediation

1. 칼빈 신학에의 적실성(適實性): 영성인가, 경건인가?

대체로 칼빈의 신학을 다룸에 있어서 학자들은 경건(pietas, piety, godliness)과 영성(spiritualitas, spirituality)이라는 단어를 그 뜻에 있어서 구별 없이 사용하고 있다. [존 칼빈의 영성(The Spirituality of John Calvin)]이라는 작품에서 루시엔 조셉 리처드는 기독교 강요 초판에 나타난 초기 칼빈의 영성을 네 가지 관점에서 파악한다:

1) 하나님과 사람을 아는 지식, 2)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사람에게 맡겨진 믿음, 봉사, 그리고 순종의 의무, 3)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의뢰, 4) 경건(piety)과 예배를 통한 사람의 응답.¹

칼빈의 영성에 관한 기본서로 여겨지는 이 책에서 저자는 경건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으로 보고 이를 영성의 일부로서 다루고 있다. 리처드 갬블(Richard Gamble)이 칼빈의 영성을 하나님 자신과 선택된 자들을 위한 그의 사역에 대한 인간의 고유한 반응이라고 전제한 후 그리스도를 모범(model)으로 한 기독교인 삶과 교회의 권징을 강조한 것이나,² 하워드 헛지만(Howard G. Hageman)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모든 것을 받고 말씀을 듣고 성례에 참여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성도의 삶에 주목해서 칼빈의 영성을 이해한 것이나,³ 브라이언 게리쉬(Brian A. Gerrish)가 “감사하는 경건(grata pietas)”이라고 명명한 칼빈의 성례적 경

¹ Lucien Joseph Richard, *The Spirituality of John Calvin* (Atlanta: John Knox, 1974), 99.

² Richard C. Gamble, “Calvin and Sixteenth-Century Spirituality: Comparison with the Anabaptists,” in *Calvin Studies Society Paper* 1995, 1997, ed. David Foxgrover (Grand Rapids: CRC Product Services, 1998), 33-42.

³ Howard G. Hageman, “Reformed Spirituality,” in *Protestant Spiritual Tradition*, ed. Frank C. Senn (New York: Paulist, 1986), 60-72.

건을 믿음과 회개를 통한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강조하면서 다루었지만 여전히 중세 카톨릭 영성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⁴ 차알스 홀(Charles A. M. Hall)이 영성과 관련된 몇 가지 신학적 주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용사로서의 칼빈 자신의 면모를 묘사한 것은⁵ 동일한 궤에 있다. 세부적인 강조점의 차이는 있으나 이상의 학자들은 칼빈의 영성이라는 개념으로 인식론적 측면에서 하나님과 자신을 아는 지식을, 존재론적 측면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그리고 실제적 측면에서 기독교인의 삶과 예배를 아우르고 있다.⁶ 칼빈의 영성을 다루면서 학자들은 칭의 자체보다 성도 각자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의 인격적인 동화(the personal assimilation of the salvific mission of Christ)”에, 성화 자체보다 “완전함”에 이르는 “거룩함의 진보 가능성”에 주목한다.⁷

알리스터 맥그라쓰(Alister E. McGrath)가 이미 십년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오늘날 프로테스탄트의 영적인 전통을 대변하던 헌신(devotion), 경건(godliness, piety), 거룩함(holiness)과 같은 단어들은 중세 이래로 로마 교회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영성이라는 단어로 대체되고 있다.⁸ 맥그라쓰는 점차 인구에 회자되는 이 말의 용례를 다음과 같이 고찰한다. “기독교 영성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하에 그리고 그 범위하에 기독교의 근본 사상들과 전체 기독교인의 삶의 경험을 함께 모으며 완전하고 진실한 기독교인의 실

⁴ Brian A. Gerrish, “Calvin’s Eucharistic Piety,” in *Calvin Studies Society Papers 1995, 1997*, 57-65.

⁵ Charles A. M. Hall, *With the Spirit’s Sword: The Drama of Spiritual Warfare in the Theology of John Calvin* (Zürich: Evv-verlag, 1968).

⁶ 특히 칼빈의 영성의 인식론적 차원과 존재론적 차원에 대해서, Otto Gründler, “John Calvin: Ingrafting in Christ,” in *The Spirituality of Western Christendom*, ed. Rozanne Elder (Kalamazoo, MI: Cistercian, 1976), 172-87.

⁷ Richard, *The Spirituality of John Calvin*, 1.

⁸ 그는 이러한 현상이 개신교와 카톨릭의 온화한 관계를 반영한다고 말한다. Alister E. McGrath, *Spirituality in an Age of Change: Rediscovering the Spirit of the Reformers*(Grand Rapids: Zondervan, 1994), 32.

존을 추구하는데 관심을 갖는다. . . . 기독교 영성은 기독교인 개개인과 단체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심화하고 혹은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길로서 이해된다.”⁹ 다음에 제시되는 기독교 영성에 대한 정의는 맥그라스의 정의를 좀더 신학적으로 제시한다.

기독교 영성은 기독교 신앙의 살아있는 경험이다. . . . 영성은 믿음 자체가 아니라 믿음이 이야기하는 종교적인 의식(意識)과 체험에 집중하기 때문에 교리와 구별된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간의 행동들이(actions)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것들 가운데서 직접적이고(immediate) 명확한(explicit) 행위들을(acts) 다루므로 기독교 윤리학과 구별된다.¹⁰

환언하며 기독교 영성은 믿음을 구원에 이르는 길로보다 종교의식의 기원으로 봄에 있어서 교리와 구별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mediation)로 말미암은 의의 전가에 따라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들로써” 하나님과의 “직접적이고 명확한(immediate and explicit)” 관계를 형성해 간다고 봄에 있어서 기독교 윤리학과 구별된다는 것이다. 과연 칼빈의 신학에서 은혜로서 주어진 선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공로로 말미암은 신의식이라는 개념이 적실한가? 과연 중보되지 않은(immediate) 하나님과의 관계가 적실한가? 과연 이러한 기독교 영성에 터잡아서 칼빈의 기독교인의 삶의 교리, 성례, 믿음 등을 다룰 수 있을 것인가?

혹자는 칼빈의 영성은 일반적으로 이해된 기독교 영성과는 다른 관점에서 다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분야에 저명한 칼빈 신학자가 “동화(assimilation)”라거나 “완전함(perfection)”이라는 단어를 어

⁹ Alister E. McGrath, *Christian Spirituality* (Oxford: Blackwell, 1999), 2-3.

¹⁰ Bernard McGinn, “Introduction,” in *Christian Spirituality I: Origins to the Twelfth Century*, eds. Bernard McGinn and John Meyendorff (New York: Crossroad, 1985), xv-xvi.

면 콘텍스트에서 사용하는지 전문을 통해서 살펴보자.

영성이라는 말로, 나는 기독교인 각자에 의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의 인격적인 동화(the personal assimilation of the salvific mission of Christ)와 이것이 기독교인의 새롭고 계속적으로 진보하는 행동 양식들을 가운데 작용함을 의미한다. 영성은 성도의 견고한 삶 가운데 거룩함이 취하는 양식들을 의미한다. 영성의 개념은 거룩함에 있어서 진보의 가능성(the possibility of progress in holiness) 있다는 것. 완전(perfection)을 향하여 일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와 같은 완전을 획득하기 위한 어떤 방법과 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¹¹

인용한 글은 저자의 칼빈의 영성 이해가 통상적인 기독교 영성 이해와 그 궤를 같이함을 말해 주고 있다. 칼빈의 신학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이해된 영성이라는 개념이 적실성이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영성이라는 말을 거두고 다시금 경건(pietas)이라는 말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이는 브라이언 게리쉬(Brian A. Gerrish)가 지적하듯이, 단순히 칼빈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영성이라는 단어보다 즐겨 사용했기 때문이 아니며, 그가 경건의 실천으로서 영성을 말하기를 했으나 오히려 후자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도 아니다.¹² 오히려 이는 전체 신학을 경건의 총괄(pietae summa)라고 보는 칼빈에게 있어서 이미 로마 카톨릭에 기원을 둔 “영성”이 자리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존 칼빈의 경건: 종교 개혁자의 영성을 묘사하는 명문선]이라는 배틀즈(Ford Lewis Battles)의 책 이름이 말해 주듯이,¹³ 우리가 게리쉬의 논문

¹¹ Richard, *The Spirituality of John Calvin*, 1.

¹² Gerrish, “Calvin’s Eucharistic Piety,” 53-54. 게리쉬는 칼빈에게 있어서 경건과 영성은 겹치나 전자가 “태도를 나타내는 단어(an attitude word)”로서 지시적(prescriptive)이라면 후자는 “실행을 나타내는 단어(a performance word)”로서 기술적(descriptive)이라고 한다.

¹³ Ford Lewis Battles, *The Piety of John Calvin: An Anthology Illustrative of the Spirituality of the Reformer* (Grand Rapids: Baker, 1978) 본서는 다

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선호하는 학자들도 그 어의에 있어서는 영성의 개념과 이를 크게 구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칼빈의 *pietas*의 용례를 비교적 상세히 다룬 또 다른 작품에서 배틀즈는 이를 기독교인의 삶의 교리에 대부분 할애함으로써 그가 경건을 논하지만 실상 영성을 이와 동일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¹⁴ 같은 경향이 이수영 박사의 글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칼빈의 경건을 열 네 가지로 제시한다: 1) 오직 한 분 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2)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대로 아는 것; 3) 우주의 창조자, 보존자, 통치자, 안내자, 수호자, 그리고 심판자로서 그의 능력, 지혜, 선, 자비, 의, 그리고 심판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4)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시며 주로서 아는 것; 5)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것의 저자시며 원천이심을 아는 것; 6) 우리가 그에게 모든 것을 빚졌음을 아는 것; 7) 우리가 오직 그로부터 모든 것을 찾고 기다려야 하며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 8) 이러한 지식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것; 9)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 10)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에게 기도하는 것; 11) 하나님께 감사하며 숭배하는 것; 12)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13)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를 섬기는 것; 14) 위의 모든 것을 진지하고 즐겁게 마음을 다하여 행하는 것.¹⁵ 이러한 목록이 상기한 리처드에 의해서 제시된 영성의 목록과 별반 다르지 않음은 확연하다.¹⁶

음 작품으로 번역되었다. [칼빈의 경건: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에 관한 글들], 이형기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86).

¹⁴ Ford Lewis Battles, "True Piety According to Calvin," in *Interpreting John Calvin* (Grand Rapids: Baker, 1996), 289-306.

¹⁵ Sou-Young Lee, "Calvin's Understanding of *Pietas*," in *Calvinus Sincerioris Religionis Vindex, Calvin as Protector of the Purer Religion*, eds. Wilhelm H. Neuser and Brian G. Armstrong (Kirksville, MO: Sixteenth Century Journal, 1997), 225-239.

¹⁶ 각주 1 참조.

2. 왜곡된 분광(分光): 영성이라는 프리즘에 비친 칼빈의 경건

지금까지 칼빈의 신학을 다룸에 있어서 학자들이 영성이라는 개념과 경건이라는 개념을 혼용하고 있음을 보았다. 맥그라쓰가 개신교내에서 영성이라는 단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한 다음 해인 1995년에 “칼빈의 영성(Calvin’s Spirituality)”이라는 논제하에 미국 칼빈 학회가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발표된 다섯 편의 논문은 리처드가 제시한 칼빈의 영성의 범위를 개략해 주는 듯했다: “신앙의 확신에 관한 칼빈의 역설”; “칼빈과 16세기 영성”; “칼빈의 성례적 경건”; “칼빈의 예배 개념”; “찬송시에 나타난 영성.”¹⁷ 논문의 발제 가운데 개혁주의의 영성과 로마 카톨릭의 영성이 구별되어야 하며 현재 “유입되고 있는 상태(a state of flux)”에 있는 21세기 영성이 신중히 고찰되어야 한다는 감블의 지적도 있었으나 이는 그 자신 카톨릭에 기원을 둔 “영성”이라는 단어로 종교 개혁자 칼빈의 “경건”을 다루고 있었음 그 자체로 퇴색되었다.¹⁸

이러한 시대 경향을 반영하듯이 근래 편찬된 옥스퍼드 종교 개혁 백과사전에서는 “경건(piety)”이라는 제목으로 종교 개혁 시대 경건은 중세 이후 카톨릭 교회에 의해서 수립된 종교의 본질과 맥이 닿아 있으며 개인의 영적 행위보다 종교의 의식과 더욱 관련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정작 Pietas라는 단어를 가장 즐겨 사용했던 칼빈과 부셔(Martin Bucer)는 그들이 이상 숭배를 반대하고 “초월하신 하나님에 대한 ‘참 예배’를 강조

¹⁷ 이 논문들은 *Calvin Studies Society Papers* 1995, 1997, ed. David Foxgrover (Grand Rapids: CRC Product Services, 1998)에 수록되어 있다. 감블과 케리쉬와 함께 발표된 다른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Joel R. Beeke, “Making Sense of Calvin’s Paradoxes on Assurance of Faith”(13-30); Elsie Anne McKee, “Context, Contours, Contents: Towards a Description of Calvin’s Understanding of Worship”(66-92); John D. Wiruliet, “The Spirituality of the Psalter: Metrical Psalms in Liturgy and Life in Calvin’s Geneva”(93-117).

¹⁸ Gamble, “Calvin and Sixteenth-Century Spirituality,” 32.

했다는 사실만 한 줄로만 언급된다. 19 저자가 종교 개혁의 경건을 카톨릭 영성의 관점에서 다루었다는 오류를 차치한다면, 역설에 불과하겠지만 그 결론은 오히려 합당하다: 경건을 카톨릭 영성의 관점으로 파악하는 한 그런 경건은 칼빈에게서 찾을 수 없다.

칼빈의 신학이 영성에 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의 신학이 왜곡되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카톨릭 영성 사전에 할애된 “칼빈의 영성 (Spiritualité de Calvin)”이라는 제하의 글은 이러한 왜곡의 전형(典型)을 보여준다.²⁰ 칼빈을 “예정론의 철학자(philosophe de la prédestination)”로 부르며 시종 그의 예정론을 비판하면서 논지를 이끌어 가는 이 글은 “칼빈의 경건(la piété de Calvin)”을 카톨릭 영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신학적 교리인 “하나님과 영혼의 연합(l’union des âmes avec Dieu)”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저자의 논지는 칼빈의 신학이 카톨릭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론으로 말미암아 왜곡되었다는 것이다. 전자와 관련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연합(l’union de l’homme avec Dieu)”의 두 수단으로서 “믿음”과 “성화에 있어서의 실천(les pratiques de la sanctification)”을 논하며 그 신학적 배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연합(l’union de l’homme avec Dieu par Jésus Christ)”을 제시한다. 후자와 관련해서, “칼빈의 그리스도는 예정된 사람들의 증보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그는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이다”는 사실이 강조된다. 왜 저자는 칼빈의 예정론을 부각시킴으로서 그의 신학에 있어서의 영성을 폄하하려고 하는가? 이는 예정론을 지지하면 전적 타락과 전적 은혜의 교리를 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하나님과의 연합을 기

¹⁹ Maureen Flynn, “Piety,” in *The Oxford Encyclopedia of the Reformation*, vol. 3, ed. Hand J. Hillerbra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266-271, 특히 칼빈에 관해서 268.

²⁰ “Calvin et calvinisme,” in *Dictionnaire de spiritualité: Ascétique et mystique doctrine et histoire*, vol. 2 (Paris: Beauchesne, 1953), I. Spiritualité de Calvin, 23-34.

초 교리로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²¹ 칼빈에게는 오직 “성도의 그리스도와 의 연합”이 있을 뿐 “사람의 하나님과의 연합”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칼빈의 “경건”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기초함으로 “하나님과의 연합”을 말하는 카톨릭 영성과는 부합할 수 없다는 것을 이 글은 역설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다. 칼빈의 경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은 의의 전가에 서 있다면 카톨릭 영성은 인간의 자질에 따른 원의(iustitia originalis)에 서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3. 정의로부터의 정의: 기독교적-삼위일체론적 경건 개념

옥스포드 종교 개혁 백과 사전과 더불어서 카톨릭 영성 사전이 우리에게 주는 역설적 교훈은 카톨릭이 공로와 자질을 강조하는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교리에 기반해서 영성 신학을 발전시킨 것과 같이 우리는 칼빈의 신학에 따라서 그의 경건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체로 지금까지 학자들이 칼빈의 경건이 영성과 대체될 수 있는 개념이라는 예단을 가지고 그가 사용한 pietas라는 단어의 용례에만 지나치게 집중한 면이 없지 않다. 학자들은 칼빈이 초기 그의 1차 신앙 교육서(1538, 라틴)에서 내린 정의로부터 경건의 개념을 찾고자 한다.

[그러나] 진정한 경건은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기꺼이 도망하고자 하는 두려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공포에 떠는 것이다.²² 오히려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사랑

²¹ 저자는 칼빈의 영성에 관한 참고 목록으로 오직 예정론에 관한 다음 두 책만을 소개하고 있다: *Traité de la prédestinaio*, 1552; *Treize sermons sur Jacob et Esau*, 1560 et 1562. Ibid. 49.

²² 이 부분에 대한 1537년 불어 신앙 교육서는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다. “Or la vraye piété ne gist pas en la crainte, laquelle bien voluntiers fuyroit le iugement de Dieu, mais pourtant quelle ne le peult fayre en a horreur

하지 않을 수 없는 신실한 감동²³ 가운데 그를 주로서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그의 의를 안고, 그를 거역하는 것을 죽음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건을 부여받은 어떤 사람도 감히 자신들의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을 고안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그로부터 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구하고 그가 자신을 보이시고 선포하시는대로 그를 생각한다.²⁴

1559년 기독교 강요 마지막 판에서 칼빈은 위의 정의를 축약하여 간결하게 제시한다.

나는 경건을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생겨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결합된 경외라고 부른다.²⁵

대체로 칼빈은 경건을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그의 뜻을 좇아 사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건의 정의는 그가 1539년 기독교 강요에서 제시하고 마지막 판에

([그러나] 진정한 경건의 요점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기거이 도망하고자 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공포 가운데 있는 것이다.) *Instruction et confession de foy*, CO 22.34.

²³ 라틴어 “sincero affectu”에 해당하는 불어판은 “순수하고 진정한 열정 가운데 (en un pur et vray zeile)”이다. CO 22.34.

²⁴ *Catechismus, sive christiana religionis institutio* . . . , CO 5.324: “Vera autem pietas non in timore sita est qui Dei iudicium libenter quidem fugiat, sed quia effugere nequeat, formidet: sed sincero magis affectu constat, qui Deum non secus ac patrem diligit, perinde ac dominum timeat ac revereatur, iustitiam eius amplectetur, offensionem morte peius horreat. Et quicumque sunt ea praediti, non quemlibet sibi Deum pro sua temeritate fingere audent: sed veri Dei cognitionem ab ipso petunt, non alium concipientes, quam qualem se ipse exhibet ac declarat.

²⁵ *Institutio christiana religionis, in libros quatuor nunc primum digesta, certisque distincta capitibus, ad aptissimam methodum: aucta etiam tam magna accessione ut propemodum opus novum haberi possit*, 1559, 1.2.1(CO 2.34: “Pietatem voco coniunctam cum amore Dei reverentiam quam beneficiorum eius notitia conciliat. 이하 본서는 *Inst.* 권.장.절 순으로 표기. 그리고 *Ioannis Calvinii opera quae supersunt omnia* 는 CO로 표기.

서 수정한 종교의 정의와 일맥상통한다.

진실로 여기에 순수하고 참된 종교가 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두려움과 결합된 믿음; 이 두려움은 그 자체로 자발적 순종을 힘유하고 그것과 함께 율법에 기록된대로 그토록 합법적인 예배에 이르게 한다.²⁶

칼빈의 경건에 대한 정의는 제한적이지 않으며 포괄적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사랑하고 경외하며 주로서 순종하고 예배하는 것이다”(Inst. 1.2.2, CO 2.35).²⁷ 그것은 현상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 고찰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서(loco patris)” 그리고 “주로서(loco domini)” 모시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되심과 주되심, 우리의 그의 자녀됨과 종됨이 논구되어야 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되심은 우리가 그의 아들과 연합함에 있다. 칼빈이 제 1차 신앙 교육서와 기독교 강요에서 내린 경건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장과 직접 관련된 것이었다. 단지 그 정의만을 두고 우리는 칼빈의 경건의 범위를 지식과 지식대로 사는 삶에 국한해서는 안된다.

칼빈은 제 1차 신앙 교육서에서 “그리스도 자신이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의 부요를 목상하는 믿음의 영원한 목적이다”²⁸는 사실을

²⁶ “En quit sit pura germanaque religio, nempe fides cum serio Dei timore coniunta: ut timore et voluntariam reverentiam in se contineat et secum trahat legitimum cultum qualis in lege praescribitur” (Inst. 1.2.2, CO 2.3; cf. Inst. 1.12.1, CO 2.86-8)칼빈의 종교(religio) 개념에 대해서, Feter Opitz, “Calvins Gebrauch des Begriffs ‘religio’,” in *Calvinus Evangelii Propugnator: Calvin, Champion of the Gospel*, ed. David S. Wright, Anthony N. S. Lane, and Jon Balsarak (Grand Rapids: CRC Product Services, 2006), 161-174, 특히 경건(pietas)과 관련해서 163-164. 배틀즈는 종교를 신앙과 두려움으로서 예배와 경건을 경외와 사랑으로서 봉사와 연관시키나 이는 다분히 자의적이다. 칼빈의 경건 개념은 계시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예배를 모두 아우른다. [칼빈의 경건: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에 관한 글들], 26.

²⁷ “. . . Deum loco patris amat et reveretur, loco domini observat et colit . . .”

수차례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다.²⁹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를 벗어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것”이라고 칭의를 가르치고 있으며,³⁰ “그리스도께서 그의 의로써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중재하심으로써 우리의 보증이신 그와 함께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지듯이 그의 영에 동참함으로써 모든 순수함과 결백함에 이르게 하신다” 라고 성화를 가르치고 있다.³¹ “성경은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의가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함이 된다”고 천명한다.³² 하나님을 아버지와 주로 모시는 경건은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고 그의 의를 전가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앙 교육서의 중심 가르침으로 제시되는 기독교적 교훈은 다음과 같이 삼위일체론적으로 천명된다.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우리에게 세 신이 있다고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단순한 하나이심, 성경, 그리고 순전한 경건의 체험 가운데서 성부 하나님, 그의 아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이해로는 아버지를 그의 살아계신 형상이 빛나는 아들과 그의 권세와 능력이 보여지는 성령을 포함함이 없이 생각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모든 생각을 묶어서 한 분 하나님께 붙들리자.³³

28 “. . . Christum ipsum perpetuum fidei obiectum esse, in quo universas divinae misericordiae divitias contempletur”(CO 5.334).

29 “. . . fidei obiectum esse Christum in confesso est . . .”(CO 5.334). “. . . Christum fidei nostrae proprium obiectum esse . . .”(CO 5.338).

30 “. . . illius iustitia coram throno Dei iusti reputemur atque ita propria iustitia spoliati, Christi iustitia induimur . . .”(CO 5.335).

31 “Quemadmodum sua iustitia Christus apud patrem pro nobis intercedit, ut eo veluti sponsore pro iustis censeamur: ita spiritus sui participatione ad omnem puritatem et innocentiam sanctificat”(CO 5.335).

32 “Christum factum esse nobis non iustitiam modo, sed sanctificationem quoque, scriptura docet”(CO 5.335).

33 CO 5.33: “Dum patrem, Filium, ac Spiritum nominamus, non tres deos nobis fingimus, sed in simplicissima Dei unitate, et scriptura, et ipsa pietatis experientia Deum patrem, eius Filium ac Spiritum nobis ostendunt. Ut concipere intelligentia nostra Patrem nequeat, quin et Filium simul

후에 기독교 강요에서 언급되듯이, “경건한 마음의 시작은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다”(Inst. 1.2.2. CO 2.35).³⁴ 경건은 카톨릭 영성에서와 같이 이미 부여받은 자질에 따른 성부 하나님과의 직접적 신교(神交)에 기초한 하나님이 됨에(神化, deificatio)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의 뜻에 따라서 성자의 의를 성령의 역사로 전가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됨에 있다. 경건은 그리스도와와의 연합 가운데 아들의 임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계속적 참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내적 역사로 그의 의를 전가 받고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에 있다. 칼빈의 경건은 이러한 그의 신학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영성이 경건을 대체할 수 없는 이유이다.

4. 칼빈의 경건 신학(theologia pietatis, theology of piety)

지금까지 칼빈의 경건을 성도의 자질, 그 자질에 따른 행위, 그 행위의 작용 혹은 효과의 관점에서 현상적으로만 파악함으로써 이를 영성과 동일시하는 학자들의 경향이 비판적으로 고찰되었다. 칼빈이 경건(pietas)이라는 단어를 영성 신학의 중심 주제들로서 거론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율법을 좇는 성도의 삶, 기도, 교회의 예배(말씀 선포, 성례, 성사 찬양), 권징 등과 관련해서 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용례가 칼빈의 경건 개념을 근본적이고 본질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그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조했다는 사실이 곧 성도의 완전(perfectio) 교리를 전제한 것은 아님과 흡사하다.

complectatur, in quo viva eius imago relucet; et Spiritum, in quo potentia virtutis eius conspicua est. In uno igitur Deo tota mentis cogitatione defixi haeremus.”

³⁴ “. . . initia pia mens . . . unicum et verum duntaxat intueatur . . . ”

칼빈의 경건은 성도의 자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성도의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속적 중보를 전제한다. 칼빈의 경건은 복음과 율법을 현상적으로만 파악해서 분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실체로서 인식함으로써 율법 안의 예수(Christus in lege)와 예수 안의 율법(lex in Christo)를 동시에 보고자 한다. 하나님의 구속경륜의 구속사적 통시성과 구원론적 공시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하나임(unity)과 연속성(continuity)에서 함께 전개된다. 환언하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심으로써 의를 다 이루시고 지금도 여전히 중보하심으로써 그 의를 전가하신다. 이와 같은 신학적 전제 아래 성도의 삶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함에 이르는 과정, 칭의의 의를 전가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화의 의를 전가 받아서 거룩하다함에 이르는 과정으로 여겨진다. 칼빈에게 있어서 경건은, 그 실체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 중보로 말미암은 의의 전가며 그 현상에 있어서는 그의 의의 전가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의미한다. 즉, 경건은 성도의 경건함에 기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지도 않는다. 경건은 성도의 경건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다. 경건은 경건함이 아니며, 현상적으로서가 아니라 신학적으로 파악되어야 된다. 그리하여 칼빈의 경건 신학이 제안되는 것이다.

4.1. 말씀과 성령

칼빈 이전의 종교 개혁자들이 지나치게 주제 중심적이었던 반면 칼빈 이후의 종교 개혁자들은 지나치게 콘텍스트 중심적이었다면,³⁵ 칼빈이야말

³⁵ 이와 같은 논지는 루터, 멜랑흐톤, 부셔의 주석들의 주제 중심적 접근과 칼빈 이후 록체우스로부터 개진된 대륙의 언약신학과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칼빈의 율법 이해에 기반한 청교도 신학이 보여주는 토착적 입장을 시사한다. 이 부분

로 그리스도의 끈으로 말씀의 확실성과 성령의 확실성을 묶어서 파악함으로써 진정한 sola Scriptura의 원리를 구현했던 종교 개혁자였다고 할 것이다.³⁶

어떠한 상호 결속에 의해서 주님께서는 그의 말씀의 확실성과 그의 성령의 확실성을 결합하셔서 온전한 말씀의 종교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관조하게 하시는 성령이 빛날 때, 우리의 영혼에 내재하도록 하신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자신의 형상, 즉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식할 때 미혹의 두려움이 없이 성령을 품도록 하신다.³⁷

말씀의 완전 축자 영감(the verbal and plenary inspiration of the Word)에 대한 칼빈의 이해는 지체된 성도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서 그의 영을 받은 사람은 영감(inspiratio)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영의 조명(illumination)으로 말미암아 감화(persuasio)된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온전하게 수납한다. 성경은

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 Jack B. Rogers and Donald K. McKim, *The Authority and Interpretation of the Bible* (San Francisco: Harper & Row, 1979), 73-261; Richard A. Muller, *Post-Reformation Reformed Dogmatic*, vol. 2, *Holy Scripture: The Cognitive Foundation of Theology* (Grand Rapids: Baker, 1993), 62-64.

³⁶ Cf. Herman Bavinck, *Reformed Dogmatics, Volume 1: Prolegomena*, ed. John Bolt, tr. John Vriend (Grand Rapids: Baker, 2003), 178-415, 583-585; Cornelius Van Til, *The Protestant Doctrine of Scripture, In Defense of the Faith*, vol. 1 (Ripon, CA: Den Dulk Christian Foundation, 1967), 115-121; Kenneth S. Kantzer, "Calvin and the Holy Scriptures," in *Inspiration and Interpretation*, ed. John F. Walvoord (Grand Rapids: Eerdmans, 1957), 115-155. Abraham Kuyper는 theologia ectypae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기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지식과 성령의 역사를 동시에 다룸으로써 계시의 삼위일체적 이해에 이른다. *Principles of Sacred Theology*, tr. J. Hendrik De Vries (Grand Rapids: Eerdmans, 1980), 275-299.

³⁷ "Mutuo enim quodam nexu Dominus verbi spiritusque sui certitudinem inter se copulavit; ut solida verbi religio animis nostris residat, ubi affulget spiritus qui nos illic Dei faciem contemplari faciat; ut vicissim nullo hallucinationis timore spiritum amplemur, ubi illum in sua imagine, hoc est in verbo, recognoscimus" (*Inst.* 1.9.3, CO 2.71)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계시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인격으로(a persona) 입술을 통하여서(ore) 말씀하신다. 성경의 권위(auctoritas)는 그 저자(auctor)인 하나님에게 있다. 이 권위는 성령의 은밀한 증거(arcanum testimonium)에 의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백성들에게만 확정된다(*Inst.* 1.7.1-5, CO 2.56-61).³⁸

성경의 권위는 교회의 해석이나 승인으로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을 받아서 그를 앞으로써 심령 가운데 인치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중보자로서 구원주이시며 내적 교사(interior magister) 이시다(*Inst.* 3.1.2, 4, CO 2.394-395, 396-397).³⁹ 그리스도는 “중보자 혹은 사역자의 인격으로 (in mediatoris vel ministry persona)” 오직 아버지께 받은 것을 말씀하신다.⁴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상호 그의 띠로 묶인 자들이 말씀의 확실성과 성령의 확실성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Inst.* 1.9.3, CO 2.71).⁴¹ 이 신비한 연합체가 교회이다. 교회론은 이러한 sola Scriptura 원리로 개진되며 그로부터 기원한다.⁴² 교회는

³⁸ 이와 같은 성경 이해에 기반하여 칼빈은 설교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성례적인 임재라고 본다. Cf. Ronald S. Wallace, *Calvin's Doctrine of the Word and Sacrament* (Edinburgh: Oliver and Boyd, 1953), 84-85; John H. Leith, “Calvin's Doctrine of the Proclamation of the Word and Its Significance for Today,” in Timothy George, ed., *John Calvin & the Church: A Prism of Reform*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1990), 211-212.

³⁹ 이는 principia theologiae로서 논해진다. Cf. Bavinck, *Reformed Dogmatics*, 89, 207 ff.; Kuyper, *Principles of Sacred Theology*, 341 ff.

⁴⁰ Comm. Jn. 17:8 (2.139-140, CO 47:379). 이하 칼빈의 구약 주석은 *The Commentaries of John Calvin*, 46 vols., Calvin Translation Society Edition (Grand Rapids: Eerdmans, 1948-1950) 사용 (vols.1-15, 이하 CT로 표기). 그리고 신약 주석은 John Calvin, *New Testament Commentaries*, ed., D. W. Torrance and T. F. Torrance (Grand Rapids: Eerdmans, 1960-1972)을 사용. 주석 표기는 전체적으로 Comm. 성경 장.절로 표기.

⁴¹ “Mutuo enim quodam nexu Dominus verbi spiritusque sui certitudinem inter se copulavit: . . .” 그리스도와 성경의 권위에 관해서, John Murray, *Calvin on Scripture and Divine Sovereignty* (Grand Rapids: Baker, 1960), 35-51.

“경건의 직무에 따라서(pro pietatis officio)”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로 인정하고 경외해야 한다(*Inst.* 1.7.2, CO 2.57).⁴³

4.2. 기독교적-삼위일체론적 구원론: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uno mystica cum Christo)에 따른 계속적 의의 전가(轉嫁)

칼빈의 구원론의 기초는 영원하신 아들이신 로고스 하나님이 육신을 취하시고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인 중보자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보좌 우편에 재위하심으로써 모든 믿는 자들의 머리가 되셔서 그의 의로 그들과 교체하시고 교통하심에 있다. 칼빈에게 있어서 내재적 삼위일체적(immanent-trinitarian) 이해와 경륜적 삼위일체적(economic-trinitarian) 이해는 상호 지향한다. “아버지는 기원이 없으시고, 아들은 오직 아버지로부터 나셨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출래하셨다”는 초대 교회에 확립된 내재적 삼위일체적 교리는 다음과 같은 경륜적 삼위일체적 이해와 함께 한다: “아버지는 사역의 시작이고 모든 일의 기원이자 근원이며, 아들은 모든 일의 지혜와 경륜과 작성된 바대로의 뜻이며, 성령은 그 사역의 능력이자 효력이다” (*Ins.* 1.13.18, CO 2.105).⁴⁴

⁴² Cf. Van Til, *The Protestant Doctrine of Scripture*, 29-30; Kuyper, *Principles of Sacred Theology*, 280-289. 성경과 교회의 전통에 관한 종교 개혁자들과 카톨릭의 이해에 관해서, Heiko A. Oberman, *Quo Vadis, Petre Tradition from Irenaeus to Humani Generis*,” in *The Dawn of the Reformation* (Grand Rapids: Eerdmans, 1986), 269-296.

⁴³ “. . . sed quia veritatem esse cognoscit Dei sui, pro pietatis officio, nihil cunctando venerat.”

⁴⁴ “Pater a nullo est, Filius a Patre solo est genitus, Spiritus sanctus a Patre et Filio procedens. . . . patri principium agendi, rerumque omnium fons et scaturigo attribuitur; filio sapientia, consilium, ipsaque in rebus agendis dispensatio; at spiritui virtus et efficacia assignatur actionis.”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시대의 교부들에게서 단초(端初)가 보이며 아다나시우스와 칼케돈을 거쳐서 어거스틴에 이르기 까지 교회 교부들에 의해서 심화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경륜적 삼위일체론적 구원 사역에 기초한 존재적 삼위일체 이해의 맥이 칼빈에게 닿아 있다.⁴⁵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손(*manus*)을 통하여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그 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 또한 오직 이와 같은 방식으로만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cf. Inst. 3.2.1*). 우리를 향하신(*pro nobis*)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in nobis*) 우리를 위하여(*pro nobis*) 역사한다.

칼빈은 칭의(*iustificatio*)를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imputatio iustitiae Christi*)”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이라고 정의한다(*Inst. 3.11.2, CO 2.534*). 칭의는 “그리스도와 교제(*communio*)하는 자리로 받아들여지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vestitus*)” 사람의 상태를 말한다(*Inst. 3.17.8, CO 2.596*). 이와 같은 이해 하에 하나님이 우리 자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까지 받아 주신다는 이중적인 은혜(이중적인 의의 전가)가 논의된다. 이 교리는 칼빈의 첫 번째 신앙교육서(*Catechismus*)에서 선포되었으며,⁴⁶ 1543년 기독교 강요에서 “오직 믿음에 의해서 우리 자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도 의롭게 된다(*sola fide non tantum nos, sed opera etiam nostra iustificari*)”고 재천명되었다(1543 *Inst. 10.70, CO 1.787, Inst. 3.17.10, CO 2.598*).⁴⁷

⁴⁵ 이레네우스와 터툴리안을 거쳐서 아다나시우스에 이르기 까지 초대 교회의 삼위일체론은 경륜적인 측면이 부각되었다. 이는 당시 영지주의에 대한 변증의 필요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특히 아다나시우스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육신에 대하여(*De Incarnatioe Verbum Dei*)] 라는 책에서 구원론적 기독교론 이해를 심화하고 있다.

⁴⁶ *Catechismus, sive christianae religionis institutio . . . , CO 5.336-337.*

칼빈의 구원론—혹은 구원서정(*ordo salutis*)—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기초하고 있음은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더욱 상론된다. 칼빈은 믿음(*fides*)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어 들어서 그의 의와 교통할 수 있게끔 하는 도구”로 정의하면서, 우리가 칭의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성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단지 “불구(不具)가 된 믿음(*mutilla fide*)”만을 가지게 된다고 말한다.⁴⁸ 그는 칭의와 성화가 구별되거나 분리되지 않는다고 믿는다. “살아남(*vivification*)”이 따르지 않는 “죽음(*mortification*)”은 없기 때문에 믿음과 무관한 법률적 회개하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⁴⁹

칼빈은 칭의를 “중생의 시작으로부터 영생의 삶에 동참하는 때까지 계속되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의 그리스도와의 교제(*communio cum morte Christi*)”라고 구체적으로 정의한다.⁵⁰ 칭의를 또한 “우리 자신과 구속주 사이에 서로 유사한 것을 찾고 이에 응답하는 (*mutua similitudo respondeat*)” 과정이라고 한다.⁵¹ 칭의의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질(*qualitatem*)”이 아니라, “그저 주신 의의 전가”라고 말한다.⁵²

⁴⁷ 필자는 이중적 의의 전가와 관련해서 수사학적 하나님의 맞추심 뿐만 아니라 신학적 하나님의 맞추심을 고려한다. 전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겨지, 교사, 의사시라는 측면이 강조되는 반면, 후자는 하나님은 성도를 의롭다 하시고 그 수준에 다시금 자신을 낮추셔서 맞추어 주셔서 기록하다 하신다는 측면이 부각된다.

⁴⁸ *Comm. Rom. 3:22 (73, CO 49.60); Rom. 8:13 (167, CO 49.117)*. Calvin asserts that faith justifies “because it leads us into fellowship with the righteousness of Christ (*quia in communicationem iustitiae Christi nos inducit*)” *Inst. 3.11.20, CO 20.550*.

⁴⁹ Cf. “. . . *hominem sibi mori ut Deo vivere incipia*” (*Inst. 3.3.3, CO 2.436*).

⁵⁰ *Comm. Rom. 6:7 (126, CO 49.108)*. Cf. *Comm. Rom. 6:3 (122, CO 49.105)*.

⁵¹ *Comm. Rom. 6:10 (127, CO 49.109)*.

⁵² *Comm. Rom. 5:17 (117, CO 49.100)*. 하나님의 의는 주입된 것 (*infusa, transfusa*)이 아니라 전가된 은혜(*gratia imputata*)에 기초한다. Cf. (*Inst. 3.11.5, 10, CO 2.536-537, 540-541*): *Contra Osianum (CO 10/1.166)*: “*Essentialem iustitiam sibi nulla ratione imaginatus est. Nam etsi eo trahit scripturae testimonia, quae Deum in nobis habitare*

우리의 공로를 보지 않고 값없이 주시는 의의 전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의의 교통(communicatio)이라는 개념에 가장 현저하게 나타난다.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에게 날마다 새로운 삶을 나누어 준다.⁵³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에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교통된다(communicatur)는 사실을 확신하게 한다.⁵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로써 칼빈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서 중보한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의(iustitia)는 오직 그리스도의 “특성(qualitatem)”이며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고유하게(proprium)” 속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⁵⁵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접붙임을 받지 아니하면 의의 열매—성화와 영생—를 찾을 길을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⁵⁶ 이와 같이 칼빈의 경건의 뿌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찾을 수 있다.⁵⁷

4.3.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자라감

칼빈은 교회의 하나임(unitas)과 연속성(continuitas)을 그리스도의 영원

asserunt, et nos unum cum ipso fieri: nihil tamen inde probatur, quam arcana spiritus virtute, dum coalescimus in Christi corpus, uniri simuo Deo. Adde, quod essentialis illa communicatio ex Manichaeorum deliriis sumpta est. Nec video quomodo excusari possit hoc absurdum, essentialem Dei iustitiam esse accidens, quod adesse nunc homini possit, nunc abesse.”

⁵³ Cf. Comm. Rom. 6:1 (121, CO 49.103): “그리스도께서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되 새로운 삶은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를 갈가리 찢는 것이다.”

⁵⁴ Comm. Rom. 1:17 (28, CO 49.20); Rom. 3:21 (70, CO 49.57); Rom. 3:22 (73, CO 49.60).

⁵⁵ Comm. Rom. 5:19 (118, CO 49.101).

⁵⁶ Comm. Rom. 6:22-23 (136, CO 49.118).

⁵⁷ Cf. Joel R. Beeke, “Calvin on Piety,”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John Calvin*, ed. Donad K. McKi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127-128.

한 중보자이심에 기초해서 다루고,⁵⁸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에 자주 문의(問議)한다.⁵⁹ 칼빈은 교회의 역사적이며 종말론적인 의의를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한 중보자의 인격 가운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적인 현재(praesentia)와 마지막 날 영원히 받으시는 영광의 관점에서 바라본다.⁶⁰ 이와 같이 교회의 기원은 중보자 그리스도로서 사역하시는 성자의 선재라는 개념에 근거해서 설명된다.

그리스도께서 그로 말미암아 창조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primogenitus)로서 불리는 바와 같이(골 1:15)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는 머리였다고 선지자는 말한다. 세상을 창조하신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머리(caput ecclesiae)가 되셔야 한다. 상실된 모든 것들이 그에 의해서 회복되어야 한다. 이로써 우리는 선지자가 그리스도의 나오심이 영원부터 라는(egressus Christi esse aeternus)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한다. . . .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육체 가운데 나타나신 그리스도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창조하신 영원한 말씀이었다는 사실과, 그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모든 창조물의 첫 열매로서, 특히 교회의 머리로서

⁵⁸ Cf. Comm. Gal. 4:1-2 (71, CO 50.224). 교회의 하나임과 연속성이 대한 칼빈의 견해에 대해서, W. McKane, “Calvin as an Old Testament commentator,” *Nederduitse Gereformeerde Theologiese Tydskrif* (1984), 254-256; Danielle Fischer, “Ministères et instruments d’unité de l’Eglise dans la pensée de Luther et de Calvin,” *Istina* 30 (1985), 14-17.

⁵⁹ Cf. Comm. Gen. 20: 7 (1.526, CO 23. 290); Ex. 3:15 (1.75, CO 24.45).

⁶⁰ Comm. Jn. 17:21 (2.148, CO 47.387). Cf. S. H. Russell, “Calvin and the Messianic Interpretation of the Psalms,”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21 (1968), 37-47. 저자는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다윗,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의 세 가지 측면과 연관해서 저자는 “시편에 나타난 칼빈의 메시아적 해석의 열쇠는 성육신 전과 후의 그리스도와 지체들의 연합”이며 또한 다윗의 왕국이 “단지 그리스도의 표상(representatio)”일뿐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현재하는(presen) 그의 왕국의 실체(substance)를” 보여준다고 주장한다(41-42).

정해져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⁶¹

칼빈은 가시적 교회를 칭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에 게 교회는 어머니가 된다고 말한다(“quibus ipse[Deus] est pater, ecclesia etiam mater sit”) (*Inst.* 4.1.1, *CO* 2.746).⁶² 믿음의 목표에 이를 때까지 성도들은 아이들과 같아서 어머니의 돌봄이 필요하다(*Inst.* 4.1.1, *CO* 2.746).⁶³ 어머니인 교회의 품에서 양육받지 않고 “학교 (schola)”인 교회에서 배우지 않는다면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어머니의 가슴이 아니면 죄사함과 구원의 소망이 없다(*Inst.* 4.1.4, *CO* 2.749).⁶⁴ 교회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감(in aedificationem corporis Christi)”이며 이 가르침에 순종함으로써 성도는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에게로 날마다 자라가야 한다(adolescamus in illum per omnia, qui est caput, nempe Christum)”(*Inst.* 4.3.1, *CO* 2.776-778).⁶⁵ 성도들이 자라감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러한 교회의 특성은 성도의 그리스

⁶¹ Comm. Mic. 5:2 (298-301, *CO* 43. 367-369).

⁶² Cyprian. *De catholicae ecclesiae unitate*, 6. M. L., 4.519; *Epist.*, 73.22, ed. Bayard, 2.275; Augustine, *Sermons*, M. L., 39.1512; *De baptismo*, 4.17, 24. M. L., 43.170; Luther, *Great Catechism*. 3. 인용, François Wendel, *Calvin: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His Religious Thought*, tr. Philip Mairet (London: Collins, 1973), 294.

⁶³ “. . . in cuius sinum aggregari vult Deus filios suos, non modo ut eius opera et ministerio aluntur quamdiu infantes sunt ac pueri. sed cura etiam materna regantur donec adolescant, ac tandem perveniant ad fidei metam.”

⁶⁴ “. . . quando non alius est in vitam ingressus nisi nos ipsa concipiat in utero, nisi pariat, nisi nos alat suis uberibus, denique sub custodia et gubernatione sua nos tueatur, donec exuti carne mortali similes erimus angelis. Neque enim patitur nostra infirmitas a schola nos dimitti. donec toto vitae cursu discipuli fuerimus. Adde quod extra eius gremium nulla est speranda peccatorum remissio, nec ulla salus teste Iesaja (37:32) et Ioele (3:5).”

⁶⁵ 그러므로 교회에서 “복음의 사역보다(ministerio evangelii)” 더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은 없다(*Inst.* 4.3.3, *C* 2.779). Cf. Geddes MacGregor, *Corpus Christi: The Nature of the Church according to the Reformed Tradition*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8), 57.

도와의 연합을 통한 그의 계속적 중보의 돌보심으로 이해된다.⁶⁶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나눠주실 수 있도록 간다⁶⁷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자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 이니라. 이것은 너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니라.” 주님께서 이를 행하심은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 우리가 그 자신의 실체로 살게 하려 하심이다. 둘의 연합이 그로부터 나오고(*la liaison du corps procede de luy*), 그는 우리의 양식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은혜와 은사가 부족할 때 우리가 우물되신 그리스도로부터 물을 길게 하려 하심이다. 우리가 복음이 가르쳐 준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에게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점점 더 강해지고 이러한 모든 은혜에 대한 믿음을 점점 더 확고하게 갖게 됨을 느끼게 된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이 다 사라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영광을 즐거워할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⁶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은혜는 “교회의 공동선(*commune ecclesiae bonum*)”을 위한 것이므로 성령의 은사들은 공히 교회의 일치를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Inst.* 3.7.5, *CC* 2.509).⁶⁸ 성령의 은사들(*dona Spiritus*)은 다양하다. 그러나 마치 다양한 성부(聲部)

⁶⁶ Cf. Marijn de Kroon, *The Honour of God and Human Salvation: Calvin's Theology According to His Institutes*, tr. John Vriend and Lyle D. Bierma (Edinburgh: T & T Clark, 2001), 149-151.

⁶⁷ John Calvin, *Sermons on the Epistle to the Ephesians*, tr. Arthur Golding (London, 1577), rev. tr. Leslie Rawlinson and S. M. Houghton (Edinburgh: Banner of Truth, 1973), Eph. 4:15-16 (404, *CO* 51:592). 이하 설교는 *Serm. 성경 장. 절로 표기*.

⁶⁸ *Comm. Rom.* 12:4-5 (*CO* 49.4-5): “Quum tamen disertis verbis notat communionem quae inter nos est, simul etiam innuit quantum studium esse debeat in commune corporis bonum conferendi quas singuli obtinent facultates.” .

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한 음을 만들어 내듯이 성도들은 각자의 은사를 다른 은사들과 조화롭게 사용하여서 궁극적으로 다른 은사들을 세워가야 한다.⁶⁹ 다양한 은사들을 지닌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서로 도와서 한 몸을 이루어 가야 한다.⁷⁰ 성령의 은사는 직분에 앞서며⁷¹ 성령의 은사로서 직분이 표현된다.⁷² 성령의 은사들은 직분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직분을 예비한다.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마다 사역과 관련된 은사들을 받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도들과 목사들을 세울 때 다만 그들에게 가만만을 씌운 것이 아니라 은사들을 공급하시기 때문이다. 이 은사들이 없으면 그들은 그들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단지 허망하고 무익한 이름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명령과 더불어서 능력을 동시에 받는다.⁷³

⁶⁹ Comm. I Cor. 12:4 (CO 49.497): "Symmetria ecclesiae multiplici (ut ita loquar) unitate constat: hoc est, dum varietas donorum ad unum scopum tendit: sicuti in symphonia varii sunt cantus, sed tali proportione inter se temperate, ut unum efficient concentum: ergo et distincta esse tam dona quam officiali convenit: et omnia tamen in unum reduce." Cf. Comm. I Cor. 12: 7, 11, 24, 27, 31; 14:5, 12, 19; Eph. 4:7, 11.

⁷⁰ Comm. I Cor. 12:12 (CO 49.501):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받은 바 은사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함으로써 서로 하나로 연합되어 갈 것을 권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인에게 은사를 주심은 은사를 받은 자를 양육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도록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 . .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는 비록 다른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unio)을 항상 깊이 생각해야 한다." Cf. Comm. I Cor. 12:11, 29.

⁷¹ Cf. Werner Krusche, *Das Wirken des Heiligen Geistes nach Calvi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57), 322-323.

⁷² Comm. Rom. 12:6-8 (CO 39.238-240). 예컨대 집사의 직분은 구제하는 은사와 긍휼을 베푸는 은사로 표현되고 장로의 직분은 다스리는 은사로 표현된다. .

⁷³ Comm. Eph. 4:11-14 (CO 51.196): ". . . quodis a Deo vocati sunt homines, dona necessario coniuncta esse officiis. Neque enim Deus apostolus aut pastores instituendo, larvam illis duntaxat imponit: sed dotibus etiam instruit, sine quibus rite functionem sibi iniunctam obire nequent. Quisquis ergo Dei autoritate constituitur apostolus, non inani et nudo titulo, sed mandato simul et facultate praeditus est."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들을 주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이룩하여 하나가 되게 하신다.⁷⁴ 은사들은 다양하지만 영은 하나인 것과 같이, 직분들은 다양하지만 몸은 하나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 이것이 사역의 신비이다.⁷⁵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의 교회의 중보자 되심—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 되심—은 삼위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냄으로써 교회의 기원과 본질과 실재를 계시한다. 교회는 함께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다. 성부는 교회의 아버지며 성자는 어머니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리고 성령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활동이며 능력이고 은사이다. 성령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동시에 발출되는 능력으로서 교회를 존재하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한다(*Inst.* 4.1.7, 13).⁷⁶ 교회는 아래로는(downward) 아버지의 뜻을 말씀이신 아들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조명된 감화 받은 성도들이 계시로서 받으며, 위로는(upward) 아들의 중보로 그의 영을 받은 백성들이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⁷⁷ 칼빈의 교회론의 기저(基底)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위로부터 받은 것을 위로 올려드리는 경건의 신학이 깔려있다.

4.4. 율법의 중보자 그리스도(Christus Mediator Legis): 하나님의 법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

⁷⁴ Comm. I Cor. 12:1 (*CO* 39:496): “. . . in quem finem spiritibus gratis orientur a Deo fideles: hoc est, in fratrum aedificationem.”

⁷⁵ 성령의 은사와 교회의 사역에 대한 기독교적 의의에 대해서, Leonard Sweetman, Jr., “The Gifts of the Spirit: A Study of Calvin’s Comments on I Corinthians 12:8-10, 28; Romans 12:6-8; Ephesians 4:11,” in *Exploring the Heritage of John Calvin: Essays in Honor of John Bratt* (Grand Rapids: Baker, 1976), 274-284.

⁷⁶ Cf. Butin, *Revelation, Redemption, and Response*, 99-101. 부틴은 삼위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들인 성도를 향한 사역이라는 측면에서 경륜을 다룬다.

⁷⁷ *Ibid.*, 102.

칼빈의 그의 초기 작품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중보에 기초한 율법의 실제와 용법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보였다. 그의 최초의 신학적 작품으로 알려진 톱(Nicholas Cop)의 파리 대학 취임 연설문에서(1533)⁷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시는 유일하신 진실한 중보자(intercessor),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foecundo) 자신의 영으로 우리를 감화하시는 가장 위대하신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진실한 믿음을 기초해야 한다는 관점으로부터 “기독교 철학(philosophia christiana)”을 “그리스도의 철학(Christi philosophia)”이라고 명명한다.⁷⁹ 그리고 이러한 이해 가운데 “율법은, 그것이 완성되었다는 명확한 조건하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제시한다”: 그러므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약속”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선언한다.⁸⁰

율법의 삼중적 용법에 대한 칼빈의 이해는 초창기 작품에서도 현저하다.⁸¹ 1535년에 출판된 올리베땅의 신약 성경 번역에 부친 서문⁸²에서 칼

⁷⁸ 이 작품의 칼빈 저작성에 관해서, Jean Rott, “Documents strasbourgeois concernant Calvin,” *Revue d'histoire et de philosophie religieuses* 44 (1964), 290-305 (text with notes, 305-311); Hans Scholl, “Nicolaus Cop-Pariser Rektoratsrede vom. 1. November 1533,” in *Calvin-Studienausgabe*. Ed. Eberhard Busch et al. (Neukirchen: Neukirchener Verlag, 1994-2002), Vol. 1/1, 2, *Reformatorsche Anfänge (1533-1541)*, 1/1.1-9 (텍스트와 번역, 10-25). 본 작품은 CSA로 표기.

⁷⁹ *Concio academica nomine rectoris universitatis Parisiensis*, 365 (CO 10/2.31).

⁸⁰ *Ibid.*, 369 (CO 10/2.34): “Lex misericordiae Dei mentionem facit, sed certa conditione: si impleatur. . . . ex sola Christi promissione, de qua qui dubitat pie vivere non potest et gehennae incendium sibi parat.”

⁸¹ 율법의 제 일 용법은 신학적 용법으로서 자신의 죄를 통하여서 비참함을 깨달아서 그리스도께 피하여 의지하게 되는 칭의와 관련되며, 제 이 용법은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사회 보호적이며 정치적 작용과 관련되고, 제 삼 용법은 거듭난 성도들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권고를 받아서 행하게 하는 성화와 관련된다. Cf. Byung-Ho Moon, *Christ the Mediator of the Law: Calvin's Christological Understanding of the Law as the Rule of Living and Life-Giving* (Milton Keynes, UK: Paternoster, 2006), 235-245.

⁸² *A tous amateurs de Jésus Christ, et de son S. Evangile. salut* (CO 9.791-821). 1551년부터 이 제목은 *Epistre aux fidèles monstrant comment*

빈은 그리스도가 율법의 실체이며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죄로 인한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아 그리스도께 나아가 의지하게 하는 신학적 용법을 설명한다.

하나님은 수 많은 의식법과 청결법과 제사법을 포함한 기록된 율법을 그의 백성들에게 수여하심으로써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그들을 확신시켜 그들이 위대한 메시아를 오랫동안 대망하게 했다. 율법은 단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 들어 온 위대한 축복에 대한 형상이자 그림자(figures et umbres, figurae et adumbrationes)였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들에 대한 실체이자 진리(le corps et verit , corpus substantia veritae)였다. 율법은 어떤 사람도 완전함에 이르게 할 수 없었다; 그것은 단지 그리스도만을 제시했다. 율법은 마치 선생(pedagogue, paedagogi)과 같아서 바울이 말한 바 있는 율법의 마침이자 완성(la fin et accomplissement, finis et complementum)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으며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⁸³

칼빈이 28세에 출판한 제 1차 신앙 교육서에는 비록 율법의 본질과 작용에 대한 심화된 이해가 나타난다. 십계명 해석의 도입 부분에서 칼빈은 지적하기를, 율법은 “모든 의의 가장 완전한 규범 (perfectissima totius iustitiae regula)”으로서 “주님의 영원한 의지”를 계시한다고 한다. 그리고 율법의 본질을 “의롭고 거룩한 삶의 진정한 모범이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자체의 가장 완전한 형상 (verum iustae ac sanctae vitae exemplar, adeoque imago iustitiae ipsius absolutissima)”이라고 정의하면서, “영생의 약속”이 없다면 율법은 이러한 원래 사역을 다하지 못한다

*Christ est la fin de la loy.*로 바뀐다. 베자에 의해서 출판된 이 서문에 대한 라틴판의 제목은 *Praefatio in N.T. cuius haec summa est: Christum esse legis finem* (CO 9.792-822)이다. Ernst Saxer, “Calvins Vorrede zur Olivetanbibel (1535).” *CSA* 1/1.27-32 (텍스트와 번역, 34-57).

⁸³ *A tous amateurs de Iésus Christ, et de son S. Evangile. salut.* CO 9.801-802.

고 말한다.⁸⁴ 이와 같이 구원 과정에서 작용하는 율법의 사역을 개관한 후, “율법,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계단(Legem gradum esse ad Christum)”⁸⁵와 “믿음으로 우리는 성화되어 율법에 복종하게 된다(Per fidem sanctificamur in legis obedientiam)”라는 장에서 율법의 신학적 용법과 규범적 용법을 각각 언급하고 있다. 특히 후자를 논하며 율법의 중보자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인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의(iustitiam)가 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함(sanctificationem)이 되심을 가르친다. . . . 그러므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에 의함이 아니라,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율법의 의에 복종하며 살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드럽게 만드는 영적인 능력에 의함이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을 위한 율법의 기능은 믿음이 없는 자들을 위한 율법의 기능과는 현격하게 다르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단지 우리의 연약과 범법(犯法)을 정죄하기만 했으나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곧은 길로부터 멀어져서 방황하지 않도록 빛을 비추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율법의 외부적인 가르침(externa legis doctrina)인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는 마음(iustitiae suae amorem)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완전한 정직함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빛과 교훈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sapientia)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욱 사악한 방종(licentia)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훈육(disciplina)이다.⁸⁶

여기서 칼빈은 성도들을 위한 율법의 기능을 중보자 그리스도의 영을 통한 그의 의의 교통과 연관시켜 설명한다. 이러한 칼빈의 입장은 기독교 강요와 후기 작품들을 통하여서 더욱 심화된다.

⁸⁴ *Catechismus, sive christiana religionis institutio . . .*, CO 5.327-332, CO 22.38-46.

⁸⁵ *Ibid.*, CO 5.332, CO 22.45-46.

⁸⁶ *Ibid.*, CO 5.335-336, CO 22.49-50.

칼빈은 율법을 “거룩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regula vivendi pie et vivificandi*)”으로 정의한다.⁸⁷ 십계명은 “경건과 의의 완전한 가르침”을 세상에 공포한 것이다.⁸⁸ 본래(*originaliter*) 율법은 선하고 완전한 것이었으나 범죄로 인하여 “우연히(*accidentale*) 죽음의 사자(*ministrant mortis*)가 되었다.”⁸⁹ 죄가 세상에 들어 오므로써 비록 *lex vivendi*로서 율법의 본질(*natura*)은 변한 것이 없으나 율법의 사역(*officium*)은 변형되어서 이제 규범적인 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신학적인 역할까지 감당하게 되었다.

칼빈은 그의 작품들을 통하여서 종종 *lex accusans*와 *lex vivendi*로 표현되는 율법의 이중적인 사역에 대해서 언급한다.⁹⁰ 그러나 *lex accusans*

⁸⁷ Cf. 율법의 계명들에서 “모든 경건과 사랑의 의무(*omnia pietatis et dilectionis officia*)”가 발견된다”(*Inst.* 2.3.51, *CO* 2.304). 칼빈의 율법에 대한 정의(*regula vivendi pie et recte*)에 대해서, *Confession de la foi* (1536), *CO* 9.694, 22.86; *Le Catéchisme de l'église de Genève . . .* (1541), *CO* 6.51-52; “The Preface,” *CTS* 2/1.xvi. xvii *CO* 24.5-6); *Comm. Ex.* 19:1-2 (1.313-316, *CO* 24.192); *Comm. Matt.* 5:19 (1 181, *CO* 45.172-173); *Rom.* 7:11 (145, *CO* 49.126).

⁸⁸ *Comm. Ex.* 19:1-2 (1.313, *CO* 24.192). 칼빈은 도덕법을 의식법이나 정치법과 구분한다. 그러나 그는 첫째 돌판에 특징적으로 규정된 “영적인 예배”에 대한 명령은 의식법으로서 경건한 삶의 규범을 보충하고, 둘째 돌판의 계명들과 관련된 정치법은 우리가 “선하고 흠결없는 삶의 규범”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칼빈은 도덕법을 의식법이나 정치법과 구분한다. 그러나 그는 첫째 돌판에 특징적으로 규정된 “영적인 예배”에 대한 명령은 의식법으로서 경건한 삶의 규범을 보충하고, 둘째 돌판의 계명들과 관련된 정치법은 우리가 “선하고 흠결없는 삶의 규범”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The Preface,” *CTS* 2/1.xvi-xvii. 칼빈이 그의 에베소서 설교에서 말하듯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믿음(첫째 돌판)과 사랑(둘째 돌판)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삶의 요약이자 완성으로서 십계명은 삶의 길이 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도 이르는 생명의 길이 된다. *Serm. Eph.* 1:15 (84-87, *CO* 51.312-315).

⁸⁹ *Comm. Gen.* 2:16 (126, *CO* 23.45); *Gen.* 3:8 (161, *CO* 23.65).

⁹⁰ *John Calvin: Treatises against the Anabaptists and against the Libertines*, tr. and ed. Benjamin W. Farley (Grand Rapids: Baker, 1982), 271-272 (*CO* 7.206-207); 1539 *Inst.* 2.83, *CO* 1.362, *Inst.* 2.5.8, *CO* 2.235-236; *Serm. I Tim.* 1:5 (44a, *CO* 53.47); *I Tim.* 1:3 (51a, *CO* 53.53-54); *The Catechism of the Church of Geneva Calvin: Theological Treatise*, tr., intro., notes by J. K. S. Reid,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 22

를 *lex vivendi*의 결과물로 본다. 이러한 입장이 1559년 기독교 강요에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하여서 진정한 경건의 도(*vera pietatis ratio*)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에 자신들이 무능함을 알게 됨으로써 극심한 심판의 공포 속에서 자신들이 비자발적으로(*subactos*), 그러나 불가피하게(*invite*), 중보자에게로 이끌려 감을 깨닫게 되었다” (*Inst.* 2:8:1, *CO* 2.266). *Sermon de la justification*라 불리는 창세기 설교의 한 부분에서 칼빈은 율법의 징죄적인(*punitive*) 용법을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경건한 삶의 규범을 가르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공표하시는 것으로 파악한다.⁹¹

율법은 항상 삶의 규범(*lex vivendi*)으로서 작용한다. 심지어 *lex accusans*(징죄의 법)로서 작용할 때에도 *lex vivendi*의 기능은 멈추지 않는다. 그러므로 율법은 항상 교육적인(*pedagogical*) 역할을 감당한다. 율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의 길”을 가르친다 (*Inst.* 1.6.2, *CO* 2.54).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Inst.* 1.9.3, *CO* 2.71),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려고 노력한다 (*Inst.* 2.12.4, *CO* 2.342).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니는 고유한 학교(*peculiarem scholam*)” (*Inst.* 1.6.4, *CO* 2.55)이며 “그리스도는 영혼의 교장(*interior magister*)” (*Inst.* 3.1.4, *CO* 2.397)이다.⁹²

율법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quid possint homines*)이 아니라 해야 할 것(*quid debeant*)을 제시한다.⁹³ 1536년 기독교 강요에서 언급하듯이, “율법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우

(Philadelphia: Westminster, 1954), 118 (*CO* 6.79-82).

⁹¹ *Serm Gen.* 15:6 (*SC* 11/2.756-758): “Vray est que la Loy nous montre bien que c’est de justement vivre, et d’acquérir justice si nous en estions capables. comme nous traiterons plus au long ici apres” (757).

⁹² 칼빈의 율법의 제 일 용법을 “의의 교사”의 성격으로 파악함에 대해서, Mary Lane Potter, “The ‘Whole Office of the Law’ in the Theology of John Calvin.” *Journal of Law and Religion* 3/1 (1985), 118-123.

⁹³ 참고. *Comm. Matt.* 5:31 (1.190, *CO* 45.180).

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다(in lege Dei non opus respiciendum, sed mandatum)” (CO 1.46).⁹⁴ 율법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역량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를 규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맞추신 의가 아니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맞추어 주신 의(iustitia accommodata)이다.⁹⁵ 율법은 사람들이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더불어 율법의 수여자의 “영원성, 능력, 지혜, 선, 진리, 의, 자비”를 계시한다 (1536 *Inst.* 1.1, CO 1.27). 율법은 명령(praeceptum)과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전가하시는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약속(promissio)을 동시에 계시한다. 그러므로 율법은 언약의 법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율법은 모세법이 기반하고 있는 종교의 형식(forma religionis), 즉 아브라함의 씨앗들과 맺은 은혜 언약(foedus gratuitum)을 포함한다 (*Inst.* 2.7.1, CO 2.352).

그리스도의 은혜의 전가로 말미암아 작용하는 하나님의 법은 그 자체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새로움이 있다는 칼빈은 기독교인의 삶의 교리의 도입부분에서 천명한다(*Inst.* 3.6.1, CO 2.501).⁹⁶ “미래를 목상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삶”으로 요약될 수 있는 칼빈의 기독교인의 삶의 교리는 그가 “칭의의 부록(appendix iustificationis)”이라고 부른 그리스도인의 자유 교리에서 절정에 이르는

⁹⁴ *Christianae religionis institutio, totam fere pietatis summam. at quidquid est in doctrina salutis cognitu necessarium, complectens, omnibus pietatis studiosis lectu dignissimum opus, ac recens editu.* 1536, CO 1.46.

⁹⁵ 참고, *Sermons of M. John Calvin upon the Fifth Booke of Moses called Deuteronomie*, tr. Arthur Golding (London: Henry Middleton, 1583), facsimile repr. (Edinburgh: Banner of Truth, 1993), Deut. 28:1 (88-89, CO 28.353); *Sermons of Maister John Calvin upon the Booke of Job*, tr. Arthur Golding (London: George Bishop, 1574), facsimile repr. (Edinburgh: Banner of Truth, 1993), 10:16-17 (186a-187, CO 33.496-499); 23:1-7 (412a-416b, CO 34.331-344).

⁹⁶ “Etsi autem novitatem illam qua imago Dei in nobis instauratur, lex ipsius in se continet.”

비(*Inst.* 3.19.1, CO 2.613), 이 자유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구원 받은 사람이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뜻을 다하여서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좇고 사는 것에 있다(*Inst.* 3.19.2-13). 그리하여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서론에서 “그리스도인의 전체 삶은 일종의 경건의 묵상(*quaedam pietatis meditatio*)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함을 위하여 부름 받았기 때문이다”고 천명한다(*Inst.* 3.19.2, CO 2.614).

그[다윗]는 명령들 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에 매여서 쓴 것을 단 것으로 바꾸는 유일한 것인 은혜의 약속을 붙잡는다. 율법이 단지 강요하고 협박하면서 두려움으로 영혼을 불안하게 했으며 공포로 그것을 질식하게 했다면, 율법보다 사랑스럽지 못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실상 다윗은 율법 가운데 우리가 중보자를 붙들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그 분이 없다면 우리에게 아무 기쁨과 달콤함이 없다.⁹⁷

4.5. 그리스도의 계속적 중보

칼빈은 중보자로서 그리스도의 현재(顯在, *praesentia*)가 타락 전에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확실히 영원한 로고스(*λόγος*)는 이미 태초로부터, 아담의 타락 전부터, 즉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분리되기 전부터 중보자였다.”⁹⁸ 그는 또한 말한다: “만약 사람이 어떤 흠도 없이 남아 있

⁹⁷ “. . . nec sola praecepta arripit, sed rebus annexam gratiae promissionem, quae sola facit ut quod amarum est dulcescat. Quid enim lege minus amabile, si flagitando tantum et minando metu sollicitet animas, et terrore angat? Praesertim vero ostendit David, se in lege mediatorem apprehendisse, sine quo nulla est oblectatio vel suavitas” (*Inst.* 2.7.12, CO 2.262).

⁹⁸ “Second Reply to Stancarò,” 147 (CO 9.350): “[Nam] certe λόγος aeternus iam ab initio ante lapsum Aadae, et alienationem ac dissidium

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위치는 너무나 낮아서 중보자 없이 하나님께 이를 수 없었을 것이다” (*Inst.* 2.12.1, *CO* 2.340).⁹⁹ 칼빈은 그의 신학적 작품들과 성경 주해 작품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중보가 전체 역사의 미침을 주장했다.¹⁰⁰ “중보자가 없다면 하나님은 인류를 향해서 자비를 보일 수가 없다. 율법 아래에 산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그리스도는 그들이 그들의 믿음을 두어야 할 목표(objectum)였다” (*Inst.* 2.6.2, *CO* 2.250).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보는 개인 구원의 전체 과정에 작용하는 율법의 사역과 용법에 적용된다. 이하에 인용한 사도행전 17장 18절의 주석에서 칼빈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제기된 중보자에 대한 그릇된 입장들을 반박한다.

중보자로서 그리스도는. . . 오직 그로부터만 구원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 믿음으로 죄사함을 간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는 사실, 이전에 불결한 죄의 굴레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갱생되어 괴롭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왕국이 영적이라는 사실을 밝히 조명해 주고 마침내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높여서 미래의 부활에 소망을 두도록 한다는 사실을 가르친다.¹⁰¹

humani generis a Deo, fuit mediator.”

⁹⁹ “Quamvis ab omni labe integer stetitset homo, humilior tamen erat eius conditio quam ut sine mediatore ad Deum penetraret.” Cf. Tylenka, “First Response to Sancaro,” 12 *CO* 9.350: “[N]ot only after Adam’s fall did he begin to exercise his office of mediator, but since he is the eternal Word of God, both angels as well as men were united to God by his grace so that they would remain uncorrupted.”

¹⁰⁰ Cf. *Comm. Gen.* 18:13 (1.475, *CO* 23.254); *Ex.* 3:2 (1.61, *CO* 24.35-36); *Isa.* 19:20 (2.75, *CO* 36.344); *Isa.* 63:17 (4.359, *CO* 37.405); *Matt.* 1:23 (1.69, *CO* 45.69); *Jn.* 5:46 (1.143, *CO* 47.129); *Jn.* 16:23-24 (2.125-128, *CO* 47.367-369); *Jn.* 16:26 (2.129-130, *CO* 47.371); *Heb.* 8:5 (107, *CO* 55.99); *Serm. Matt.* 26:36-39 (65, *CO* 46.846); *Matt.* 26:67-71:10 (114, *CO* 46.886); *Gal.* 3:13-14 (407-408, 412, *CO* 50.515, 518); *Gal.* 3:15-18 (423-437, *CO* 525-534).

¹⁰¹ *Comm. Acts* 17:18 (2.108, *CO* 48.406).

칼빈은 이러한 증보자의 하나임과 연속성에 기초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성취와 그 공로의 구원론적 적용을 동시에 파악한다. 성도의 삶은 칭의의 의의 전가와 성화의 의의 전가로 설명된다. 그리스도의 계속적 증보로 인한 교제(communio)와 교통(communicatio)의 개인적 차원과 교회적 차원이 함께 논구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 개인 구원 차원에서의 사랑이 함께 하는 믿음(fides cum caritate)이,¹⁰² 교회의 성도의 교제 차원에서의 건전한 교리와 형제적 사랑(*sana doctrina et fraterna doctrina*)이 추구된다(*Inst.* 4.2.5, CO 2.771). 이러한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이 함께 만나는 곳에, “공홀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곳에(시 85:10), 증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증보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신 의의 전가, 전가된 의, 그 감화 그리고 작용—이 모든 것이 칼빈의 경건이라는 단어에 함유된다.

5. 결론적 고찰

경건은 “영성”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영성”이라는 어의(語義)는 역사

¹⁰² Fides cum caritate 라는 개념은 신앙의 수위(首位)를 주장하는 칼빈이 사랑의 수위를 주장하는 Sadolet를 반박하며 주장하는 개념이다. 이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증거된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 fides efficax caritatis”과 같은 개념이다. “Nam si Christum possidet qui iustitiam est adeptus. Christus autem nusquam sine suo spiritus est. inde constat, gratuitam iustitiam cum regeneratione necessario esse coniunctam. Proinde si rite intelligere libet, quam sint res individuae, fides et opera, in Christum intueri: qui, ut docet apostolus, in iustitiam et sanctificationem datus nobis est (I Cor. 1, 30). Ubi ergo cunque ista quam gratuitam praedicamus fidei iustitia est, illic est Christus. Ubi Christus, illic spiritus sanctificationis: qui animam in vitae novitatem regeneret” (CO 5.398). Cf. Helmut Feld. “Um die reinere Lehre des Evangeliums: Calvins Kontroverse mit Sadoletto 1539,” *Catholica* 36 (1982), 168-180.

적으로 고대 철학으로부터 기원하는 습성(habitus)과 자질(qualitas)이라는 개념들과 관련해서 형성되었다. 영성은 하나님의 존재와 교통하는 영적 자질을 의미한다. 영성은 증보자 그리스도의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직접적 신교(communicatio Dei, 神交)를 추구한다. 영성은 “하나님은 자신 속에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다(Facientibus quod in se est Deus non denegat gratiam)”는 로마 교회의 공로사상에 기초하는 개념이다.¹⁰³ 영성은 증보자 그리스도의 계속적 증보로 말미암은 의의 전가가 아니라, “자신 속에 있는 자질(quod in se est)”에 따른 협력적 공로(칭의, meritum de congruo)와 합당한 공로(성화, meritum de condigno)에 문의(問議)한다.¹⁰⁴ 이러한 공로에 따른 자질의 주입을 오시안더는 본질적 혹은 본래적 의(iustitia essentialis sive originalis)라고 부르며 개신교에 끌어들이었으며,¹⁰⁵ 이후 전적 타락으로 인

¹⁰³ 로마 교회 공로 사상의 근간인 “*facientibus quod in se est Deus non denegat gratiam*”에 대해서, Alister E. McGrath, *Iustitia Dei: A History of the Christian Doctrine of Justification*, 2n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83-91; Heiko A. Oberman, “*Facientibus Quod in se est Deus non Denegat Gratiam*: Robert Holcot O. F. M. and the Beginnings of Luther’s Theology,” *Harvard Theological Review* 55 (1962), 317-342.

¹⁰⁴ Heiko A. Oberman, “Duns Scotus, Nominalism, and the Council of Trent,” in *The Dawn of the Reformation: Essays in Late Medieval and Early Reformation Thought*(Grand Rapids: Eerdmans, 1992), 211-218.

¹⁰⁵ 오시안더는 그리스도의 형상(imago Christi)으로 창조된 인류는 본래적인 의(iustitia essentialis sive originalis)를 지녔으며 하나님의 본질을 투입(intusa) 받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닮아 간다고 말하면서, 비록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도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오시안더에 따르면 증보자 그리스도의 대속의 필연성은 부인되는데, 그는 우리의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의롭다(nos una cum Deo iustos ess)”는 사실에 기반한다고 본다(*Inst.*, 3.11.5-12, 인용. 3.11.11, *CO* 2.541). Cf. John Calvin, *Against Osiander in Calvin’s Ecclesiastical Advice*, tr. Mary Beatty and Benjamin W. Farle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91) 32-34. 칼빈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칼빈과 오시안더의 논쟁에 대해서, J. Faber, “Imago Dei in Calvin: Calvin’s Doctrine of Man as the Image of God by Virtue of Creation,” in *Essays in Reformed Doctrine*, 234-239; Peter Wyatt, *Jesus Christ and Creation in the Theology of John Calvin*(Allison Park, Pa: Pickwick

한 죄의 직접적 전가를 부인하고 간접적 전가를 주장하며 죽음의 형벌은 도외시하고 인간의 오염과 부패만을 문제 삼았던 신학자들은 이러한 자질을 성향(affectus)이라는 모호한 단어로 대체했다.¹⁰⁶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자질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도의 의의 계속적 전가를 말한다. 그의 의로 거듭나고 그의 의로 거룩하게 된다. 칭의의 의를 전가해 주심으로 의롭다하시고 성화의 의를 전가해 주심으로써 거룩하다 하신다. 경건은 자질이 아니라 전가된 의의 제 양상이다. 경건 신학은 경건의 직무들(officia pietatis)을 넘어서서 말씀의 계시와 존재의 변화와 더불어서 예배를 아우른다. “믿음이 성령의 주요한 작품(praecipuum opus)”이라면(*Inst.* 3.1.4, *CO* 2.396) 기도는 “믿음의 주요한 실습(praecipuum exercitium)”이다(*Inst.* 3.20의 제목, *CO* 2.625).¹⁰⁷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유하며 그와 함께 대화하는 것은 그의 무한한 신적 본질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의 계시를 그의 의의 전가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받는 것이다.¹⁰⁸ 삶 가운데서 걸려 넘어지는 것들(scandala)을

Publications, 1996), 39.

¹⁰⁶ 프랑스 소우물 학과와 알미니안주의의 영향을 받은 미국의 부흥신학이 이러한 입장에 선다.

¹⁰⁷ Cf., John Hesselink, “ohn Calvin *On Prayer* : in *John Calvin. On Prayer: Conversation with God*, ed. Donald K. McKim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06), 1-37. 헷셀링크 박사는 칼빈의 기도론의 신학적 특징을 하나님의 부드러운 초대중보자 그리고 중재자로서 그리스도말씀의 불가결함성령의 역할믿음의 중요이라는 관점에서 다룬다. 기도는 중보자의 중보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과의 대화(colloquium)로서 기도는 믿음으로부터 나오고 믿음을 강화함을 강조한다. 특히 주목할 것은 칼빈은 에라스무스와 루터와는 달리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를 단지 영적으로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해석한다는 점이다. 특히 칼빈의 선지서 강의 후에 드린 기도문들은 그의 기도신학에 대한 입장을 잘 대변한다. 본서의 편집인 McKim은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자비의 하나님으로서 부름, 죄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함, 하나님의 인도하심-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함, 진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권고함. 이와 더불어서 칼빈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리에 있어서 특징적인 미래의 목과 상응하는 기도의 종말론적 동기가 논급된다. *Ibid.*, 38-43.

¹⁰⁸ John Calvin, “Regarding the Name of God and Its Use in Prayer,” in *Calvin’s Ecclesiastical Advice*, 17: “In any case, whenever we think of

모두 없애고 지상에서 완전케 이르코자 하는 성도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절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는 단지 부딪히는 돌이 아니라(사 8:14; 벰전 2:8), 성도에게는 신령한 산 돌이다(벰전 2:4). 그의 은혜로 성도는 신령한 산 집으로 지워져 가는 것이다(벰전 2:5). 중국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된 것이다(마 11:6; 눅 11:23).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훈육을 통하여서 부분별한 영이 길들여지고 순종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순수한 가르침(*doctrina pura*)에 서지 않는 자로서 누가 참 경건(*pietas vera*)을 말할 것인가?¹⁰⁹

God or want to speak of him, we ought to avoid dwelling on his infinite essence. This form of thinking is dangerous, since human understanding becomes confused by it. Rather, we should constantly return to Jesus Christ, in whom the Father has revealed himself to us.”

¹⁰⁹ John Calvin, *Concerning Scandals*, tr. John F. Fraser (Grand Rapids: Eerdmans, 1978), 특히 7-14, 20-21, 26-28, 48, 54, 59-64, 67, 101, 116-119. 성도의 걸려 넘어짐과 관련해서 롬 7:22-24 해석 참조 (*Inst.* 2.2.27, *CO* 2.207-209).

참고문헌

- Battles, Ford Lewis. *The Piety of John Calvin: An Anthology Illustrative of the Spirituality of the Reformer*. Grand Rapids: Baker, 1978.
- "True Piety According to Calvin." In *Interpreting John Calvin*. Grand Rapids: Baker, 1996: 289-306.
- Bavinck, Herman. *Reformed Dogmatics, Volume 1: Prolegomena*. Ed. John Bolt. Tr. John Vriend. Grand Rapids: Baker, 2003.
- Beeke, Joel R. "Calvin on Piety."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John Calvin*. Ed. Donad K. McKi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125-152.
- Calvin, John. *A tous amateurs de Iésus Christ, et de son S. Evangile, salut*.
- *The Catechism of the Church of Geneva*. In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Tr., intro., notes. J. K. S. Reid.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 22. Philadelphia: Westminster, 1954: 88-139.
- *Catechismus, sive christianae religionis institutio*
- *Concio academica nomine rectoris universitatis Parisiensis*.
- *Concerning Scandals*. Tr. John F. Fraser. Grand Rapids: Eerdmans, 1978.
- *Contra Osiandrum*.
- *The Commentaries of John Calvin*, 46 vols. Calvin Translation Society Edition. Grand Rapids: Eerdmans, 1948-1950.
- *Christianae religionis institutio*, 1536.
-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1539.
- *Instruction et confession de foy*.
- *New Testament Commentaries*. Ed. D. W. Torrance and T.

- F. Torrance. Grand Rapids: Eerdmans, 1960 1972.
- *Praefatio in N.T. cuius haec summa est: Christum esse legis finem.*
- *Sermons of Maister Iohn Calvin upon the Booke of Job.* Tr. Arthur Golding. London: George Bishop, 1574. Facsimile repr. Edinburgh: Banner of Truth, 1993.
- *Sermons of M. Iohn Calvin upon the Fifth Booke of Moses called Deuteronomie.* Tr. Arthur Golding. London: Henry Middleton, 1583. Facsimile repr. Edinburgh: Banner of Truth, 1993.
- *Sermons on the Epistle to the Ephesians.* Tr. Arthur Golding. London, 1577. Rev. tr. Leslie Rawlinson and S. M. Houghton. Edinburgh: Banner of Truth, 1973.
- *Treatises against the Anabaptists and against the Libertines.* Tr. and Ed. Benjamin W. Farley. Grand Rapids: Baker, 1982.
- De Kroon, Marijn. *The Honour of God and Human Salvation: Calvin's Theology According to His Institutes.* Tr. John Vriend and Lyle D. Bierma. Edinburgh: T & T Clark, 2001.
- Dictionnaire de spiritualité: Ascétique et mystique doctrine et histoire*, vol. 2. Paris: Beauchesne, 1953.
- Flynn, Maureen. "Piety." In *The Oxford Encyclopedia of the Reformation*, vol. 3. Ed. Hans J. Hillerbra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266-271.
- Gamble, Richard C. "Calvin and Sixteenth Century Spirituality: Comparison with the Anabaptists." In *Calvin: Studies Society Papers 1995, 1997*. Ed. David Foxgrover. Grand Rapids: CRC Product Services, 1998: 33-42.
- Gerrish, Brian A. "Calvin's Eucharistic Piety." In *Calvin: Studies Society Papers 1995, 1997*. Ed. David Foxgrover. Grand Rapids: CRC Product Services, 1998: 57-65.
- Gründler, Otto. "John Calvin: Ingrafting in Christ." In *The*

- Spirituality of Western Christendom*. Ed. Rozanne Elder. Kalamazoo, MI: Cistercian, 1976: 172-87.
- Hageman, Howard G. "Reformed Spirituality." In *Protestant Spiritual Traditions*. Ed. Frank C. Senn. New York: Paulist, 1986: 60-72.
- Hall, Charles A. M. *With the Spirit's Sword: The Drama of Spiritual Warfare in the Theology of John Calvin*. Zürich: Evx verlag, 1968.
- Hesselink, I. John. "John Calvin on Prayer." In John Calvin, *On Prayer: Conversation with God*. Ed. Donald K. McKim.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06: 1-37.
- Kantzer, Kenneth S. "Calvin and the Holy Scriptures." In *Inspiration and Interpretation*, ed. John F. Walvoord. Grand Rapids: Eerdmans, 1957: 115-155.
- Kuyper, Abraham. *Principles of Sacred Theology*. Tr. J. Hendrik De Vries. Grand Rapids: Eerdmans, 1980.
- Lee, Sou Young. "Calvin's Understanding of *Pietas*." In *Calvinus Sincerioris Religionis Vindex, Calvin as Protector of the Purer Religion*. Eds. Wilhelm H. Neuser and Brian G. Armstrong. Kirksville, MO: Sixteenth Century Journal, 1997: 225-239.
- Leith, John H. "Calvin's Doctrine of the Proclamation of the Word and Its Significance for Today." In Timothy George, Ed. *John Calvin & the Church: A Prism of Reform*.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1990.
- MacGregor, Geddes. *Corpus Christi: The Nature of the Church according to the Reformed Tradition*.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8.
- McGinn, Bernard. "Introduction." In *Christian Spirituality I: Origins to the Twelfth Century*. Eds. Bernard McGinn and John

- Meyendorff. New York: Crossroad, 1985: xv–xvi.
- McGrath, Alister E. *Spirituality in an Age of Change: Rediscovering the Spirit of the Reformers*. Grand Rapids: Zondervan, 1994.
- Moon, Byung Ho. *Christ the Mediator of the Law: Calvin's Christological Understanding of the Law as the Rule of Living and Life Giving*. Milton Keynes, UK: Paternoster, 2006.
- Muller, Richard A. *Post Reformation Reformed Dogmatics*, vol. 2, *Holy Scripture: The Cognitive Foundation of Theology*. Grand Rapids: Baker, 1993.
- Murray, John. *Calvin on Scripture and Divine Sovereignty*. Grand Rapids: Baker, 1960.
- Oberman, Heiko A. "Facientibus Quod in se est Deus non Denegat Gratiam: Robert Holcot O. P. and the Beginnings of Luther's Theology." *Harvard Theological Review* 55 (1962): 317–342.
- "Quo Vadis, Petre? Tradition from Irenaeus to *Humani Generis*." In *The Dawn of the Reformation*. Grand Rapids: Eerdmans, 1986: 269–296.
- Opitz, Peter. "Calvin's Gebrauch des Begriffs 'religio'." In *Calvinus Evangelii Propugnator: Calvin, Champion of the Gospel*. Ed. David F. Wright, Anthony N. S. Lane, and Jon Balserak. Grand Rapids: CRC Product Services, 2006: 161–174.
- Potter, Mary Lane. "The 'Whole Office of the Law' in the Theology of John Calvin." *Journal of Law and Religion* 3:1 (1985): 117–139.
- Richard, Lucien Joseph. *The Spirituality of John Calvin*. Atlanta: John Knox, 1974.
- Rogers, Jack B. and McKim, Donald K. *The Authority and Interpretation of the Bible*. San Francisco: Harper & Row,

1979.

- Rott, Jean. "Documents strasbourgeois concernant Calvin." *Revue d'histoire et de philosophie religieuses* 44 (1964): 290-305 (text with notes, 305-311).
- Sweetman, Leonard Jr. "The Gifts of the Spirit: A Study of Calvin's Comments on I Corinthians 12:8-10, 28; Romans 12:6-8; Ephesians 4:11." In *Exploring the Heritage of John Calvin: Essays in Honor of John Bratt*. Grand Rapids: Baker, 1976: 274-284.
- Van Til, Cornelius. *The Protestant Doctrine of Scripture. In Defense of the Faith*, vol. 1. Ripon, CA: Den Dulk Christian Foundation, 1967.
- Wallace, Ronald S. *Calvin's Doctrine of the Word and Sacrament*. Edinburgh: Oliver and Boyd, 1953.
- Wendel, François. *Calvin: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His Religious Thought*, tr. Philip Mairet. London: Collins, 1973.
- Wyatt, Peter. *Jesus Christ and Creation in the Theology of John Calvin*. Allison Park, Pa.: Pickwick Publications, 1996.